

# “姜寶有, 해외 한국어교육을 위한 한국어 형태론 연구” 에 대한 토론

---

박진호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

1. 객관적-주관적 판단의 상대성
2. 보조사들 사이의 차이, 주관성의 정도 차이
3. 주관성의 구체적 내용
4. 화자의 선택 가능성

# 객관적-주관적 판단의 상대성

- 화자가 자신의 자유의지를 바탕으로 하여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것이므로, 즉 발화된 문장 내의 모든 요소는 화자가 선택한 것이므로, 어떤 의미에서는 주관적이라고 할 수 있음.
- 따라서 언어활동 전반이 주관성을 띠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님.
- 따라서 절대적 주관성은 별로 유용한 개념이 아니며, 둘 이상의 언어표현을 비교하여 어느 것이 상대적으로 더 주관적이라고 말하는 방식이 더 유용함.
- 예컨대, 컵에 물이 절반쯤 들어 있는 상황을 표현할 때, 아래의 3가지 문장 중 a는 b, c에 비해 상대적으로 객관적이고, b, c는 a에 비해 상대적으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음. b와 c 중 어느 것이 더 주관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움.
  - a. 컵에 물이 절반**쯤** 있다. b. 컵에 물이 절반**이나** 있다. c. 컵에 물이 절반**밖에** 없다.
  - 즉, ‘-(이)나’는 주관대량을 나타내고 ‘-밖에’는 주관소량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음.
  - 주관대량: 화자가 설정한 기준/기대 수량에 비해 많다고 판단
  - 주관소량: 화자가 설정한 기준/기대 수량에 비해 적다고 판단

# 보조사들 사이의 차이, 주관성의 정도 차이

- 격조사와 보조사를 비교하면, 사태를 그저 **객관적으로 묘사**할 때 격조사가 사용되는 경향이 있고, 객관적 묘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화자가 **어떤 내용을 추가**할 때 보조사가 사용되는 경향이 있음.
  - a. 이번 시험에 **철수가** 합격했다 : 객관적 묘사
  - b. 이번 시험에 **철수조차** 합격했다 : 주관적 내용 추가 (철수는 시험에 합격할 확률이 낮다는 판단 전제)
- 그런 점에서 격조사는 객관적이고 보조사는 주관적이라고 한 발표자의 주장은 일리가 있음.
- 그러나 모든 보조사가 같은 정도로 주관적인 것은 아닌 듯함.
- c. 이번 시험에 **철수도** 합격했다.
  - 격조사 ‘-이/가’를 쓴 경우에 비하면 추가되는 정보가 있음(철수 외에 다른 사람도 합격했다는 정보).
  - 그러나 이 추가 정보는 그리 강하게 주관적이지는 않음. (cf. -조차)
- d. 이번 시험에 **철수만** 합격했다.
  - 격조사 ‘-이/가’를 쓴 경우에 비하면 추가되는 정보가 있음(철수 외에는 합격한 사람이 없다는 정보).
  - 그러나 이 추가 정보는 별로 주관적이지 않음. (cf. -조차)

- 보조사들이 대체로 주관적이기는 하나, 어떤 점에서 주관적인지 그 내용을 상세히 밝히는 것이 중요함.
- ‘-(이)나’, ‘-밖에’ 같은 보조사는 주관량과 관련이 있음.
  - 화자가 설정한 기준/기대 수량에 비해 더 많거나 적다는 (상당히 주관적인) 판단을 나타냄.
- ‘-은/는’ (대조), ‘-도’는 대안집합의 원소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화자의 (조금만 주관적인) 판단을 나타냄.
  - ‘-은/는’: 선택된 항목(세로초점)과 대안집합의 다른 원소 사이에 대비/차이가 있음을 나타냄.
  - ‘-도’: 선택된 항목과 대안집합의 다른 원소가 (문장에 표현된 사태의 측면에서) 같음을 나타냄.
- ‘-조차’, ‘-까지’, ‘-마저’는 대안집합의 원소들이 (사태의 성립 확률과 관련하여) scale을 구성하며, 선택된 항목이 이 scale상의 끝점임을 나타냄. (상당히 주관적인 판단)
- ‘-부터’는 선택된 항목이 대안집합의 원소들을 어떤 기준에 따라 줄세웠을 때의 첫째 항목임을 나타냄.
  - 대기하고 있는 학생들 중 철수**부터** 교무실로 들어와라. / 사과**부터** 먹을래. / 학교**부터** 갈래.
  - 대안집합의 원소들을 줄세우는 기준을 화자가 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약간의 주관성이 인정될 수 있으나
  - 그 기준이 화자 외적인 요인에 의해 이미 결정되어 있을 수도 있음.

# 화자의 선택 가능성

- 주관성은 주체가 자신의 의지에 의해 선택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함.
- 어떤 의미를 언어로 표현할 때, A라는 옵션도 가능하고 B라는 옵션도 가능할 때, 이들 중 어느 것을 선택하여 사용할 것인가 하는 점에서 주관성이 발생하는 것임.
- 반대로, 어떤 의미를 표현하고자 할 때 화자에게 한 가지 옵션밖에 없다면, 즉 선택의 여지가 없다면, 주관성이 있다고 하기가 어려움.
  - 한국어의 주절에서는 문두의 주어에 조사 ‘-은/는’과 ‘-이/가’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나, 내포절에서는 (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) ‘-이/가’만 가능하여 (주절에 비해 상대적으로) 선택이 제한됨. 즉 내포절에 비해 주절에서의 주관성이 더 높음.
- 그런데 화자가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를 더욱 세밀하게 記述하여 이를 주어진 불변의 조건으로 보면, 화자에게 주어진 옵션이 줄어들며, 따라서 주관성도 별로 없다고 할 수 있음.
  - a. 이 책을 읽기 어렵다. b. 이 책이 읽기 어렵다. / c. 사과를 먹고 싶다. d. 사과가 먹고 싶다.
  - 거칠게 보면 두 옵션이 가능하나, ‘이 책’, ‘사과’를 (화제, 초점 등으로) 부각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b, d가 선호됨.
  - 한편 이 선택 가능성은 ‘-기 어렵-’, ‘-고 싶-’ 같은 요소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. 이런 요소가 없을 때는 선택 가능성이 없음: \*이 책이 읽었다, \*사과가 먹었다
- 어떤 언어요소가 주관적이다, 주관성이 있다는 언명 자체는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매우 유용한 말도 아닌 경우가 많음. 그러한 **주관성의 구체적 내용과 주관적 선택을 가능케 하는 요인**에 대한 본격적이 탐색이 중요함.